

Brief

중국 크루즈관광의 동향 및 제주의 시사점



제주발전연구원 정지형 책임연구원

Contents

- Ⅰ. 크루즈의 개념 및 현황
- Ⅱ. 중국 크루즈관광 현황 및 전망
- Ⅲ. 제주의 시사점

I. 크루즈의 개념 및 현황

- 크루즈는 항해 자체가 승객의 휴기활동의 일부이므로 운송목적인 페리와는 달리 호텔, 관광, 리조트 그리고 운송의 개념을 포함함
 - 크루즈는 경관이 아름다운 항구도시, 역사도시, 문화도시, 휴양지 등 우수한 관광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기항하면서 운항함
- 크루즈관광은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맥락 속에서 크루즈 부두 등 시설·장비산업과 관광서비스업 관련 산업이 다양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적임
 - 세계관광기구(UNWTO)는 크루즈 관광을 최단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선정하였음
 - 또한 세계 크루즈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'15년에는 2,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 - 인천항만공사는 승객 2,000여명을 태운 크루즈선 1척이 입항하면 항만 인근에 경제적 부가가치 10억 원이 유발될 것으로 분석함
- 크루즈 관광산업은 2006년 이래로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
 - 최근 2011.11.16일 기획재정부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양관광·레저 활성화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였음
- 크루즈 시장은 현재 북미·유럽 중심이나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아시아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.
- 2012년 제주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은 85회(약 12만 명)로 2011년 69회(6만5천여 명)에 비해 16회 증가하였음
 - 이 중 중국을 출항지로 하여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는 총 4척이며 입항횟수는 37회 임
- 제주는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크루즈 마케팅의 강화, 국제직항노선 확대와 항공편 증대, 직항전세기편 확대를 내세우고 있음
- 따라서 제주는 정부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의 정책적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면서,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크루즈관광 육성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II. 중국 크루즈관광 현황 및 전망

- 크루즈 시장은 현재 북미·유럽 중심이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아시아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 - 세계 크루즈 시장은 북미 70%, 유럽 22%, 아시아 및 기타 8%로,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음
 - OSC(Ocean Shipping Consultant)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은 '05년 44만명에서 '10년 72만명, '15년 1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함

1. 중국 크루즈관광 현황

- 중국은 동북아와 동남아 양대 지역을 모두 넘나들 수 있어 크루즈 항로의 중요한 출항지이자 목적지, 또한 중요한 기항지이기도 함
- 중국 크루즈 산업은 2005년 말 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함
 - 2006년 7월 이탈리아 코스타사가 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음
 -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의 영향으로 중국 크루즈 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음
 - 중국 중앙정부 외에 상해(上海), 천진(天津), 광주(廣州), 대련(大連), 청도(靑島), 위해(威海) 등의 도시도 크루즈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
 - 2009년 1월 중국 교육부는 크루즈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“크루즈 승무”라는 대학 및 대학교 전공을 설치하였음
- 2011년 중국 연해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횟수는 142회로 전년대비 49.5% 성장하였음¹⁾
 - 중국교통운수협회 크루즈유람선분회(CCYIA)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서 운행된 국제 크루즈선 운항횟수는 전년대비 18.8% 증가한 총 95회이며, 크루즈를 이용한 중국인 여행자 수는 79만 명으로 전년대비 20.1% 증가하였음²⁾
- 또한 2011년 1월, 이탈리아 코스타사의 'CLASSICA'호가 상해에 신규 입항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로얄 캐리비안의 '보이저' 호가 상해와 천진을 모항으로 운항 중에 있음

2. 크루즈항 개발과 관광 육성정책

- 상해(上海)시는 외국 크루즈선의 입항비용 감면, 외국선사 대리점 설립, 항구 기반시설 건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해남(海南)성은 ‘국제 여유도(國際旅遊島)’³⁾ 라는 국가사업과 함께 항구 건설 및 크루즈 관광을 육성하고 있음
- 동남연해지역은 하문(廈門)시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크루즈 관광 상품개발에 집중함
- 화북지역은 천진(天津)시를 중심으로 크루즈 모항 건설과 관련시설 개발 및 선박 입항비용 감면, 관광객 통관 정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- 화동지역은 청도(靑島)시를 중심으로 크루즈 산업을 촉진하고 있음
 - 청도(靑島)시는 중국 국내 처음으로 크루즈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·일본에서의 10개 도시와 연합하여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1) 중국출국관광정보망(中国出境旅游资讯网), http://www.outbound-tourism.cn/detail.asp?newsid=News_1241&class=208

2) <2010-2011中國郵輪發展報告>, <http://wenku.baidu.com/view/52765b838762caaedc33d401.html>

3) 2020년 해남도를 열린 섬·녹색 섬·문명의 섬·조화로운 섬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섬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주요 계획

- 화남연해지역은 주해(珠海), 광주(广州), 심천(深圳)을 중심으로 홍콩, 마카오를 연결한 연합모항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⁴⁾

〈표 1〉 중국 크루즈항 현황

구분	항구명	수용능력	건설계획	비 고
모항	홍콩(香港)	-	전용부두(2개) 2014년 완공예정	
	상해(上海)	3-4척	-	- 2008년 12월 20일 개항 - 8만톤급 이상의 크루즈가 정박 가능하며, 10-15만톤급의 대형 크루즈선 3척이 동시에 정박 가능
	천진(天津)	3척	-	- 2010년 6월 26일 개항 - 이탈리아의 코스타와 미국의 로알 캐리비안이 천진항을 모항으로 삼고 있음 - 2015년에는 약 100여척의 국제 크루즈선이 천진항을 모항으로 이용할 계획이며, 크루즈 이용객은 대략 25-30만명으로 추정
	하문(廈門)	2척	-	- 로알 캐리비안사의 크루즈선 21편이 운항되며, 그중 13편이 하문 국제크루즈 항을 모항으로 삼고 있음 - 연간 150만명 수용 가능함
기항항	대련(大連)	5-8척	서비스시설 건설 및 부두 재건축 2013년 초에 완공예정	
	청도(靑島)	2척		- 현재 한국과 일본으로 매주 5편씩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하고 있음
	삼아(三亞)	3척		- 10만 톤급 국제 크루즈선이 정박 가능함 - 현재 5만톤급 1선석과 20만 톤급 부두가 건설 중에 있음
	해구(海口)	3척		

자료: 중국 교통운송협회 크루즈 보트분회(2010), www.oceanterminal.com.hk, 재인용

3. 중국 크루즈 관광시장 전망

-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크루즈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 - 2011년 중국의 해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22% 성장한 7,025만 명에 달하며, 미국 해외관광 시장의 12배, 일본의 3.5배에 달함⁵⁾

4) 류환경·왕명명, 중국 크루즈관광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, 아·태비즈니스연구, 제2권 제2호, 2011.11, p 113

5) 중국관광연구원(中国旅游研究院), <http://www.ctaweb.org/html/2012-4/2012-4-13-8-32-54848.html>

- 중국 국무원의 <관광산업의 가속화 발전에 대한 의견 <2010-2011中國郵輪發展報告> 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해외관광객 수는 8,300만 명에 달하며 연 평균 9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⁶⁾
- 2010년 크루즈 운항횟수가 전년대비 18.8% 증가한데 반해,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50%정 도 급성장을 하면서 향후 중국의 크루즈 관광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관광의식을 제고하며 이에 따라 크루즈 관 광도 잠재력이 클 것임
- 테마가 있는 여행, 개성있는 관광 등 고급 관광시장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크루즈 시장 또 한 주제화와 테마가 있는 관광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

III. 제주의 시사점

1. 보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전략 구사

- 제주특별자치도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 국내외 항구지역 간 다양한 협력체계 구 축과 마케팅 강화가 필요함
- 부산항은 중국 산둥성 지역 항만들과 공동으로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는 등 크루즈 산업 활 성화에 대해 서로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음
- 또한 부산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최대여행사인 CITS(중국국제여행사총사)와 MOU체결 및 중국 최대 인터넷 여행사인 상해휴정국려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, 국제 대 형 크루즈선사인 코스타 및 로얄캐러비안 아태본부와도 MOU를 체결하였음
- 상해, 천진 등 중국의 신흥 크루즈목적지들이 탄탄한 크루즈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갖추면서 크루즈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국제 대형 크루즈선사 및 중국 유명여행사들과 MOU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제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
- 중국 인센티브 시장과 크루즈 관광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을 고부가가치 전략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

2.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

- 크루즈선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제주지역의 15만 톤급 국제 크루즈 전용부두의 확충이 필 요함
- 13만8천 톤급의 크루즈 보이저호가 6월23일 제주 외항에 입항 후 향후 17회 방문할 예정임

6) 중국정부, http://www.gov.cn/jw/gd/2009-12/03/content_1479523.htm

- 부산은 기존 8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(동삼동) 1선석 외에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15만 톤급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 하고 있음('11-'15년)
- 인천은 남항에 15만 톤급 크루즈 부두 1선석('14년 8월경 일부 개방), 국제여객부두 7선석(2선석: '14년까지 완공, 5선석: '16년까지 완공), 국제여객터미널 1개동('16년까지 완공)이 개발 될 계획임
- 크루즈터미널의 조기 건설을 통한 CIQ 문제 해소가 필요함
-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이 협소함으로 인해 중국 및 일본에서 출발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선내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으며, 세관, 출입국관리, 검역 등 출입국 3대 수속(CIQ)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
- 초대형 크루즈인 보이저호가 제주에 입항하면서 CIQ에만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으며,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인도장이 없어 임시 인도장을 마련하였음
- 따라서 향후 제주가 대형 크루즈 선박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크루즈터미널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
- 또한 관광안내, 환전, 기념품 판매 등을 상시 제공하는 크루즈 관광 종합 안내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질의 제고가 필요함

3.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

- 제주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
- 인천관광공사는 암스테르담 호(6만 톤급)의 기항 시 '연안부두 수산시장-월미 전통공원-차이나타운-신포시장'으로 구성된 인천시 투어상품을 기획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
- '관광상륙허가제'가 시행되면 최장 3일 무비자로 국내에 체재할 수 있어,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지역인 제주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
- 현재 제주에 기항하는 시간은 대략 7-10시간 정도여서 제주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기항시간에 맞춘 제주의 볼거리, 즐길거리, 먹을거리를 특화하는 다양한 관광상품과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함
-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개별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개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
- 호화크루즈 여행객들은 그들만의 고급화된 프리미엄 문화상품과 쇼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타깃으로 한 테마가 있는 음식상품의 개발 및 쇼핑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
- 이 외에 제주 오일장 및 동문, 서문 시장의 제주 특산물과 재래시장 탐방 테마관광상품, 바다를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등 중국인 관광객의 요구에 맞춘 세밀화 된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함

- 또한 기항하는 시간에 제주에서 개별관광을 즐기려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
 - 단체관광을 신청한 크루즈 관광객은 전세버스로 이동하여 짧은 기항시간에 맞춰 관광을 할 수 있음
 - 하지만 개별 관광을 즐기려는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주변 관광정보 및 교통편 이용방법(외국어 통역택시 정보 제공 등), 추천 관광코스 등을 수록한 관광정보를 관광앱, 관광지도 등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화순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으로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에게는 보다 더 명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향후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성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, 이들을 위한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과 수용태세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

참고/문/헌

- 국토해양부 보도자료, 2012.5.3
- 권해석, 인천에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...내년 300억원 신규 편성, 건설경제, 2011.11.16
-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해양관광·레저 활성화 방안, 2011.11.16
- 김승섭,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(2011-2020)확정, 해양한국 456호, 2011.08.31
- 류환경·왕명명, 중국 크루즈관광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, 아·태비즈니스연구, 제2권 제2호, 2011.11
- 이현주, 크루즈 관광의 국내수요와 전망, 해양국토 21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10.11
- <2010-2011中國郵輪發展報告>, <http://wenku.baidu.com/view/52765b838762caaedc33d401.html>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(해양개발과), <http://www.jeju.go.kr/contents/depart.phpdepart=52&siluk=15&mid=01>
- 제주관광공사, <http://www.ijto.or.kr/korean/>
- 중국경제망 (中國經濟網), <http://www.ce.cn>
- 중국관광연구원 (中國旅游研究院), <http://www.ctaweb.org/>
-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(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), <http://www.gov.cn/>
- 중국출국관광정보망(中國出境旅游資訊網), <http://www.outbound-tourism.cn>

※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 내용 문의 : 제주발전연구원 정지형 책임연구원(726-6216 / kbh0225@jdi.re.kr)

• 지난 호는 www.jdi.re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제주발전연구원 포커스 제140호 2012년 6월 29일
발행처 :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: 양영오

690-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
Tel.064-726-0500 Fax.064-751-2168
www.jdi.re.kr

